

# 출마선언 봇물 터진 야권, 반기문 입만 쳐다보는 여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손학규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반기문

## 분주해진 잠룡들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12월20일)를 1년 3개월여 앞두고 잠룡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야권의 대선시계는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확실한 주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권과 달리 야권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라는 분명한 주자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권=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8월말부터 이번호 초까지 경남 봉하마을, 낙동강 하구둑, 서울 성균관, 강원 인제·양구·철원 등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3일 서산에서는 지지자 약 300여명이 모여 온라인 팬카페 출범식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물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자 몸조심'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11일엔 광주를 방문했고 추석 직후 대표직 사퇴 후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지 8개월 만에 서울 흥동동점으로 다시

돌아와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더민주 내 유력 주자들도 최근 잇따라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우선, 김부겸 의원이 대권도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3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조직 '새희망포럼'의 정기총회에 참석, "특정 후보의 대세론만 가지고 대선에 임한다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져 무난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 '대세론'을 비판한 뒤 "국민 마음속에 남아있는 희망의 마지막 끈을 당기기 위해 허든 챔피언이 필요하다"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를 제가 한 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인 지난 1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뛰어넘겠다. 동교동도 진노(진노무현)도 뛰어넘겠다.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대권도전을 시사했다. 안 지사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대한민국 모든

## 유력주자 문재인·안철수·김무성 전국 돌며 분주한 행보

### 김부겸·안희정·박원순·이재명 등도 앞다퉈 출사표

### 반총장 모호한 입장 유지...손학규·유승민·남경필 몸풀기

국민이 원하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갈 것"이라며 지지사 역할을 뛰어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주를 방문한 직후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사회적인 어머니 광주를 떠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대한민국이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국 순방 중인 지난 5일 교민·유학생 간담회에서 "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권교체가 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달 28일 광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에 와보고 싶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엔 독일을 방문, 베를린장벽 등을 둘러보며 11월 제주를 방문하는 등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당의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자신의 지지모임인 '자구구국(自救救國 :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 포럼' 첫 행사를 지난 8일 광주에서 개최,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14년 8월 정계은퇴 선언 후 강진에서 집거해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오는

10월 중순께 정계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운동체' 형식의 조직을 만들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지지자들과 함께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를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던지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여권=야권 잠룡들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여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메머드급 후보를 내지 못한 것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대표를 탄생시킨 후 반 총장 영입을 전제로 대선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반 총장은 여전히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가장 확실히 대선행보를 하는 인물은 김무성 전 대표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월초 진도 팽목항을 시작으로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민생행보를 하고 8월말에는 중국을 방문,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봤다. 그는 이미 지난 7월 중순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만찬 모임을 하고 각오를 다진 바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한림대에서 강연을 했다. 오는 30일엔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 대권 지지계를 켜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25일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심이 서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도전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다. '수도 이전'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남 지사는 이번엔 안보정책 화두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활발한 정책행보를 펼치고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4·13 총선 패배 후 행보를 자제해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난 6월 '공생연구소'를 열고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또 조만간 '왜 지금 공생인가'라는 책을 낼 계획이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비박계 단일후보인 주호영 의원을 지지해 친박과 결별을 선언하며 당내 노선을 확실히 정리했다.

총정권 주자이자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대권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문재인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더민주 쌓여가는 걱정

더불어민주당 안팎에는 '이래론'이란 말이 흘러다닌다.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뜻이다. 지난 전당대회 전부터 퍼진 이 말은 '문재인 대세론'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정치권 인사들은 '이회창의 추억'을 거론하곤 한다. 더민주의 한 비주류 인사는 "'이회창'이 1997년에 이어 2002년 대선에서도 연거푸 무너진 최대 패인은 '이회창 대세론'이었다"며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이회창 주변 세력의 오만과 독주는 국민에게 불쾌함과 피로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세론은 당내 경선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선에서는 필패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대세론은 있을 수 없다'며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해 준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표에 도전할 만한 인물은 당내 경쟁을 피하려하고 있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인사들만 대세론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당 상황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

## 안철수, 당 안팎 연대·단일화 압박 언제까지 버틸까

야권의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내년 대선전이 본격화될 시점에 야권 후보단일화나 연대를 하지 않고 '3자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안 전 대표는 야권통합이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미 국민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옛날 생각이 갖고 분석한 것"이라며 답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연대 내지 단일화 압박은 여전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10일 전주에서 "내년 10월, 11월이 되면 국민이 어떤 후보를 결정하려는지 보고 우리도 국민이 선택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연대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당 소속인 광주지역 한 의원은 "내년에 대선전이 불붙으면 단일화 압박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더민주를 중심으로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기존 '물리적 결합'과는 다른 연대 방법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